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문성근·김어준 '시민의눈' 창립



〈16면에서 계속〉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우한연구소는 송승민이 있는 중국과학원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송승민과 양정철의 만남 이후 10월10일 양정철은 채동욱을 만난다. 그리고 10월22일 중국 공산당 라오닝성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양정철을 만난다. 이후 일주일 뒤 10월30일 양정철은 다시 김경수와 이재명을 만난다. 경기도에서 늦은 밤 이들은 만나서 이례적으로 기자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는다.

2019년 10월30일은 조국 사태로 국내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15일에 사퇴했다. 이후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 법정에 출석하며 어수선한 시기였다. 또 이때는 10월30일 인구 기준일 후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인구수를 확정하는 날이었다. 투표자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예산과 투표함 수 등을 정하게 된다.

2020년 2월20일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선거보다 약 12% 투표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2019년 10월30일 급증하는 투표자 수를 예상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투표자 인구수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빅데이터Ⅰ- 최정묵의 마이크로 지도 특허

2017년 최정묵은 '마이크로 지리 추출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xtracting MicroMap)'이란 특허(1017889910000)를 출원한다.

최정묵의 특허는 빅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정보와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어디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두 개 데이터의 교집합 내용은 카페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성별·연령·거주 지역·세대 구성·결혼 여부·주거 면적·거주 유형·거주 형태·학력 등 9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이 이 빅데이터에 기초해 인파와 장소시간 등을 선거 유세에 잘 활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정묵의 특허 내용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은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며 이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선거에서 빅데이터란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지지층을 구분하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최정묵은 2020년 4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그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목표 득표율 = 후보자 득표율 - (핵심지지층 + 타깃 지수)
 - = 후보자 득표율 - 핵심지수를 100%로 재환산한 값
 - 핵심지지층 + 타깃 지수 = 핵심지수를 100%로 재환산한 값
 - 타깃 지수 = 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지수
 - = SWING VOTER 안의 값
- 여기서 핵심 지지층은 지난 선거 결과에서 최소한의 득표율을 말한다. 목표 득표율이란 추가로 얻

발탁된다.

고한석은 2019년에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0년 4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참고로 고한석은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이다. 중부지역당 사건이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전국 조직원 300명 규모의 대형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거물 남파간첩 이선실(서열 22위)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오 씨가 1991년 7월 강원도 삼척소재 모 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빈표를 이용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고한석이 만든 목표값은 빈표를 이용해 달성할 수 있다.

계획이 실적보다 높으면 빈표는 민주당으로 분류하게 하고 계획이 실적보다 낮으면 빈표는 무효표로 분류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온라인에서 목표값을 설정하고 오프라인에서 빈표를 준비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역대 무효표 기록을 보면 이번 21대 선거에서 4.21% 지난 선거의 두 배 정도의 무효표가 기록됐다. 22대 선거에서는 2965만4450투표자 중 130만9931표가 무효표로 4.42%라는 역대 선거 최고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시민의눈' 시민단체

2016년에 창립된 '시민의눈'은 문성근과 김어준에 의해 만들어졌다.

문성근은 문익환의 아들이다. 문익환은 1989년 북한을 방북했고 1993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되었다. 하태경 전 의원이 1993년에 '법민련(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 분부 의장인 문익환 목사가 만든 '통일맛이' 단체에 들어간 바 있다.

문성근은 배우이다. 2003년 북한을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김어준은 유명한 좌익 언론인이다. 이들이 2016년에 '시민의눈'이란 단체를 만든 목적은 2017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김어준과 문성근은 공인으로서 방송 및 언론에서 지금까지도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는 선거를 참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7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거까지 '시민의눈' 이 선거에 참여해 참관했다.

참관인의 경우 여당 20%·야당 20%가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시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선거에서는 일반 참관인 60%가 '시민의눈'과 중국인으로 이뤄졌다.

일반 시민들 참관 모집 자체를 하지 않았고 참관인들은 '시민의눈' 직원들이 면접을 보고 뽑았다. '시민의눈'에서 일하는 지역별 간부들은 각 지역의 공공단체 요직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

2020년 4월15일 선거에서도 서울의 고민정 민주당 후보의 홍보 팸플릿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단체장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홍보했는데 그 사람은 지난 문재인 대선 당시 '시민의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가로 지역 단체장 자리를 챙긴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의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19면에 계속

특정 정당·후보 지원단체 투표 참관할 수 없는데 버젓이 들어가
2020년 선거 일반 참관인 60%가 '시민의눈'과 중국인으로 이뤄져
'시민의눈' 활동한 지역 간부들 공공단체 요직 받고 이권도 챙겨



2016년 김어준(맨 뒤 가운데)과 '시민의눈' 회원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참여한 '시민의눈' 사람들.

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안전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전원위원회 결과 발표에 반발한 것이다.

빅데이터Ⅱ- 고한석의 선거 전략 판세표

SK 동북아시아팀 그리고 사회디자인연구소를 거친 고한석이 2015년 5월12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이 만든 목표값과 선거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날 토론장에는 최정묵도 참여했다.

고한석은 추출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사람들을 구분해 상대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유권자 중 얼마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을 수 있는 표 수를 얘기한다. 이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고한석은 핵심지수를 만든 것이다.

즉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설득 가능한 유권자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한석은 핵심지수를 사용해 목표값을 만드는 데 여기서 타깃 지수를 조정하면 격전 지역구에서 목표하는 의석수만큼을 추가로 얻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은 2017년 사퇴한 진성준 전 부원장의 후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고한석 씨를 임명했다. 2018년 민주당은 3대 특위를 만드는 데 '혁신성장 추진위원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특위' '한반도 비핵화대책특위' 모두 박정희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전문위원으로 고한석이

고한석은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중부지역당 산하 편집국 제작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역당 당원들은 전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이들이다. 고한석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당시 출소하면서 자신의 항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지령 문건이 담긴 캡슐을 담아 외부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다. 고한석은 교도관들이 추궁하자 수감 중이던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 황인오 씨로부터 메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자백했었다. 황인오씨는 중부지역당을 조직한 간첩 황인오의 친동생이다.

보행자가 보이면

잠시 멈춤, 보행자 배려의 시작입니다.

일단 멈춰주세요!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